

## 세계가 인증한 가치, 4년간 시간만 보냈다

### 숨죽인 '지역 자산' 다시 깨우자

#### 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상) 성과와 실태

대불국사산업단지과 여수세계박람회, 광주 뿌리 산업, 무등산, 수산업 등은 오랜 시간 광주·전남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동력들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수십여년간 지역 성장과 이미지 제고의 버팀목이 돼 왔지만,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의 물결에 밀려 어느덧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낙후된 광주·전남의 재도약을 위한 효용 가치는 여전히 있다. 외려 한발짝 더 나아가면 광주·전남만의 독보적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매력이 차고 넘친다. 이에 본지는 광주·전남만이 가진 지역 자산의 현 실태를 점검하는 시리즈를 통해 향후 지향점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7년 5월 19일 전체 면적인 845.7km<sup>2</sup>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경북 청송. 인구 2만4,600여명에 불과한 청송은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지질요소와 지역문화를 융합한 관광상품을 개발, 지질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관광패턴의 변화는 가장 두드러진다. 대형버스를 이용해 지역의 대표 명산 주왕산 산행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가는 패턴이었던 청송관광은 지질공원 인증 후 체험·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학생 등 단체 탐방객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16년 200만명 정도였던 청송군 관광객은 지질공원 인증 이후인 2017년 450만명, 2018년에서 540만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도 늘고 청송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면서 지역경제도 눈에 띄게 활성화 됐다. 청송군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만나는 청송 지질공원과 온택트 지질교육, 탐방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질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세계지질공원에 이름을 올린 제주도. 제주도 전역을 아우르는 지질명소 중 화산학

###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질관광 활성화 등 성과 '글쎄' '무등산 마크나?' 지오폴드 브랜드 인지도 낮아 실효

### 지오토레일 등산코스 일색...지자체간 협업도 엇박자 플랫폼 건립 등도 담보...4월 기간만료 '재인증' 비상

연구의 교과서로 불리는 수월봉은 접근성이 떨어져 낚시꾼들만 찾던 외진 마을이었지만, 유네스코 인증 이후 새롭게 발돋움했다.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 인증 직후부터 독특한 지질특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월봉 일대에서 세계지질공원 국제트레일 행사를 진행했다. 친환경적 탐방 개념을 살린 수월봉 지질트레일은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 탐방객들은 제주도 지질의 진면목을 직접 체험했다. 여기에 전문가·해설사 탐방, 체험 프로그램 등이 더해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수월봉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여전히 '핫'한 제주 최고의 트레일 코스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와 청송, 한탄강과 함께 유네스코가 인증한 국내 4곳 뿐인 세계지질공원 중 한국인 무등산

권은 어떨까. 무등산 권역은 지난 2018년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면서 광주·전남을 넘어 세계 속 자산으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했지만, 현실은 암울하다. 자연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공존은 차치하더라도 지질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 지난 4년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증 현황=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광주 501.18km<sup>2</sup>, 화순 95.18km<sup>2</sup>, 담양 455km<sup>2</sup> 등 총 1,051.36km<sup>2</sup>에 이른다. 이중 지질명소는 총 20곳으로, 주상절리대 5곳과 풍화지형 10곳, 퇴적지형 1곳, 화석지 1곳 등이다. 주상절리대는 정상부인 천왕봉을 비롯해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신선대, 백마능선 등에 두루 분포해 있다. 해발고도 750m 이

상의 산상에, 11km<sup>2</sup> 정도로 드넓게 펼쳐져 있고, 광석대의 경우 최대 7m까지 주상절리의 두께가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보고된 주상절리 중 가장 두꺼운 사례다. 서우리 공룡화석지는 70여개의 공룡 보행렬과 1,800여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됐다. 조각류 발자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수각류 발자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비지질명소인 역사문화명소는 42곳으로 증심사, 환벽당, 소쇄원, 월계동 장고분 등이 속한다.

◆4년간 무얼 했나= 광주시와 전남도, 화순·담양군은 세계지질공원 등재 이후 지질유산과의 연계 및 홍보, 파트너십 개발, 네트워크 강화 등 유네스코의 권고사항 실현에 주력했다.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 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 이 사업에는 3년간 25억7,200만원(국비 18억원, 시비 3억8,600만원, 도비 3억8,600만원)이 소요됐다. 지오브랜드 개발, 세계화 추진, 지역문화를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목적이었지만, 딱히 내세울 성과는 없다.

▶3년으로 이어짐 /정근산·임채민 기자

###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17일부터 10만원씩 준다

광주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지 등록 또는 거주 신고를 한 외국인이다.

명부 작성 기준 시점인 12월 1일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날까지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튿날인 2일에 전출했다더라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계좌입금, 17일에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과 선불형 상생 카드 현장(행정복지센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로, 신청 첫 주인 오는 17~21일에는 혼잡을 예상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광주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중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총괄·시스템 운영·행정지원·모니터링 등 4개 반, 15개 부서로 구성된 추진단을 가동한다. /오선우 기자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두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 이재명, 이낙연과 광주서 '원팀 행보'...총결집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원팀 행보'에 나섰다. 이 전 대표의 지지기반이자 당의 텃밭인 호남에

서 협력을 다짐해 민주 진영 총결집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선대위 해산 등 야권 결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비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와 함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극복 DNA를, 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국민의 힘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는 분기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손 잡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결정됐다.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우리의 옛 동지들도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며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양극화, 복지, 안전 등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저를 그것을 정치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면서 "국민통합은 상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노동자와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대한 견해도 잊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병훈 국회의원 "오늘이 자리는 물리적 결합을 뛰어넘어 화학적 결합이 되는 자리"라며 "윤석열, 저쪽 당의 거시기(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선대위를 해산한다고 한다. 지라시에 돌던 본인 사퇴는 안 하고 실무형 선대위로 재구성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일정으로 담양 에코센터와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오선우·민찬기 기자

전남매일이 귀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

「전남매일 제4기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접수기간

2021. 11 ~ 2022. 02. 18(금)

#### 강의장소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2층 아젤리아홀

#### 강의시간

월요일 19:00~ 20:00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 교육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1년 16강 과정)

#### 수강료

350만원 (부가세포함)

#### 접수처

전남매일 사업국  
Tel. 062) 720-1011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